

민주 광주시장 경선 방식 이번주 결정

광주 국회의원들 '배심원+국민참여' 요구 정세균대표·주류층 혼합형 수용할지 관심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이 결국 시민공천배심원제와 국민참여경선을 혼합한 방식으로 결정될 흐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은 11일에 이어 12일에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주 내에 광주시장 후보 경선 방식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1일 민주당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광주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광주시장 후보 경선 방식과 관련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국민참여경선을 도입하는 것이 논리나 명분에 맞다"면서도 "지도부의 입장을 존중해 시민공천배심원제가 도입되더라도 국민참여경선의 취지가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의에는 박주선·김동철·강기정·조영태·김재균 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해외 체류중인 김영진 의원과 광주시장 주자인 강운태·이응섭 의원이

불참했다. 국회의원들이 지도부의 입장을 고려, 시민공천배심원제가 도입되더라도 국민참여경선의 취지가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국민참여경선"은 일단 "시민공천배심원제+국민참여경선"의 혼합방식이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

문제는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의 시민공천배심원제 반영 비율, 광주 국회의원들은 한발 양보한 만큼 시민공천배심원제가 일정 부분 도입된다면 반영 비율은 20~30% 이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공천배심원제(20~30%)+시민 여론조사(30~40%)+당원 여론조사(30~40%) 등의 비율로 구성돼야 국민참여경선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배심원단 구성도 시민 배심원이 외

국인으로 구성되는 전문 배심원보다 두 배 이상 많아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광주도 국회의원들은 "국민참여경선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혼합형에 따라 광주시장 후보 경선 방식은 일단 '시민공천배심원제+국민참여경선'의 혼합방식이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 문제는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의 시민공천배심원제 반영 비율, 광주 국회의원들은 한발 양보한 만큼 시민공천배심원제가 일정 부분 도입된다면 반영 비율은 20~30% 이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공천배심원제(20~30%)+시민 여론조사(30~40%)+당원 여론조사(30~40%) 등의 비율로 구성돼야 국민참여경선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배심원단 구성도 시민 배심원이 외

하지만 국민참여경선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왔던 광주 국회의원들이 지도부의 입장을 고려,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일정 부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정세균 대표 등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 50% 반영안을 밀어붙일 경우, 광주 국회의원들의 뜻을 엮고 있는 박주선 최고위원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결국 과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광주시장 후보 경선 방식 결정이 과격으로 치달았다면 호남은 물론 전국적인 민주당 지방선거 전략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도 당내 주류층의 부담이다. 결국 광주시장 후보 경선 방식은 국민참여경선과 시민공천배심원제를 혼합한 방식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정 대표는 지난 10일 광주 국회의원들과 회동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끝까지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홍콩 한국학교 방문한 이희호 여사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11일 홍콩 한국국제학교(KIS)를 방문,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격려했다. 학교 관계자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있는 이 여사(가운데)와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에서 두번째).

與 “성범죄자·금고형 공천 안 받겠다” 野 “한나라 지방 비리백서 만들겠다”

여야, 지방선거 후보자 부패·파렴치 공방

우근민 전 제주지사의 민주당 복당 파문이 확산하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방선거 상대 후보자들의 부패·파렴치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공방을 주고받았다.

우선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당독점의 폐해가 무엇이고 어떻게 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한나라당에 의한 지방권력 농단 비리 백서를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고 말하며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우상호 대변인이 이명박 대통령이 도착비리 척결을 지시한 것과 관련, "234명의 기초단체장 중에 94명이 지금 부정부패혐의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한나라당 소속 기초단체장이라며 "이번 지방선거가 무패한 한나라당 지방정권 심판의 장이 될 것을 두려워하여 인제 와서 도착비리 근절을 외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정병국 공천심사위

원장은 11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정세균 대표의 지방권력 비리 백서 발간 발언에 대해 "뭐 묻은 게 뭐 묻은 게를 나무란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출신들도 마찬가지다"며 "민주당에서 전체 선거를 기획하는 사람이나, 서울·인천·강원·충남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모두가 이미 재판을 받아서 뇌물 수수로 형이 확정되었거나 그것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는 분들 아니냐"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또 전남 당원·당규를 개정, 사면복권된 경우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도 공천자격을 주도록 한 것에 대해 도덕성의 후퇴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11일 다시 공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병국 한나라당 사무총장 겸 중앙당 공천심사위원장은 11일 오전 중앙당 공심위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선거를 기획하는 사

람이나 일부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려는 후보가 재판을 받아서 뇌물수수 혐이 확정됐거나 재판을 받는 중이나 우리는 공천심사 기준을 과거보다 더 엄격하게 해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신중을 배제할 것"이라며 "▲성범죄 등 파렴치범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 ▲부정비리 전력자 ▲경선 부정행위자 ▲경선 불복자 ▲금고형 이상 형을 선고받은 자 등은 공천 신청 자체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원·당규와는 별도로 심사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나라당 소속 자치단체장 여러 명이 비리혐의로 중도사퇴했다"고 다시 지적한 뒤 "당선된 단체장이 비리로 그만둘 때는 보궐선거에 소속정당은 후보를 내지 않는 정식 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법원에서 성회통 화형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우근민 전 지사에 대해 지난 3일 복당을 허용했으며 이에 여성단체 등으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배심원제 도입 즉각 철회하라”

광주시민단체총연합 촉구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는 11일 "민주당은 광주시장 경선에서 시민공천 배심원제를 도입하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내고 "우리는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지역에 불어온 민주당의 시민공천 배심원제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특수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고안된 경선제도가 광주시장 경선에만 적용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민주당의 통합과 혁신이 광주시장 경선방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되며 시민 참여가 없는 통합과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파업맨 지원 끊겨... 노사 한발짝 양보가 살길”

■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 '금호' 해법 제시

정리해고를 둘러싼 사측과의 이견으로 금호타이어 노조가 다음달 1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에 도전하는 후보들이 노사의 양보를 촉구하는 해법을 제시했다.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1일 "금호타이어 노조의 경의행위가 가결되면서 금호타이어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면서 "노사가 한발씩 양보를 통해 공멸이 아닌 공생을 위해 우선 회사부터 살리는 지혜를 발휘해줄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금호타이어는 회사의 입지반만 아니라 협력업체 330여개사와 가족들 그밖에 많은 시도민의 이해와 직결된 호남의 대표적 기업이다"면서 "앞으로 노

사의 냉정함을 잃지 말고 진지한 협상을 해달라는 것이 제가 들은 민심"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에 나선 이응섭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금호타이어는 채권단의 긴급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회사 회생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며 "노사가 서로 입장을 한발씩 양보해 상생 방안을 도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노조와 경영진이 경영혁신 및 자구노력에 합심하지 않으면 하청업체를 비롯한 지역경제에 최악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15일까지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이 남아 있고 노조와 회사 측은 협상을 지속할 계획인 만큼 극적인 타결을 이뤄 최

의 사태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동채 광주시장 예비후보도 이날 "금호타이어 문제 해법은 사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찾는 게 아니다"며 "여야를 떠나 함께 힘을 보태고 해법을 찾는 데 지혜를 모으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이어 "광주시장 예비후보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자제로 재차 협상을 달라라는 광주시민의 뜻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금호타이어가 노사간 원만한 대화를 통해 대타협을 이뤄 하루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금산공인중개사
T.681-5888 H.011-801-5354
(서광주역 건너 순환도로변)

상무 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 위치: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 옆(4면 광로변)
- 대지면적: 약 2,850㎡(180평 분할가능)
- 3.3㎡당 매매가: -1,300만원
-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 종합병원/상기/오피스/유흥가능

장점

- ① 주상복합(공동 APT) 가능
- ② 광로변 최고 광고 효과
- ③ 롯데마트 상무병원 건너 삼성화재빌딩 최고의 상권
- ④ 최고의 교통 접근성 (광주시청 접근성과 광공간 5·18로 광로변)
- ⑤ 상무 신도심 중심 상업, 방화지구
- ⑥ 10층 신축건물 옆

바다공인중개사
☎ (063)581-5909
☎ 010-8004-5900
(전북 사해안, 새만금 전문업소)

새만금-변산-고시포-격포-신흥-모항 해수욕장까지의 부자 빌트업소

- ▶ **펜션건물(투자,직영,임대)**
 - 대지 300평 건물 140평
 - : 매가 7억
 - 직영시 월 수입
 - 최저 1300만원 이상 발생
 - 용차 2억 이상 가능
- ▶ **투자용 펜션 용지**
 - 150~300평
 - : 평당 50~100만원
 - 해수욕장 주변으로 배산임수를 갖춘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으로 투자 최적함.
- ▶ **투자용 전원주택 용지**
 - 150~300평
 - : 평당 25만~35만원
 - 새만금 일직지역을 탈피하고 한가로움 전원 주택지를 찾는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새만금 관광시대 임박으로 펜션투자시 광주지역 원통부지의 절반 금액으로 수입은 3배이상 금리는 연 25%이상 보장되는 돌진만 취급

● 2010년 4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 개항으로 지금이 투자적기!

하나은행 하나캐피탈 대출

- ◆ **마니또론 신용대출**
 - 직장인, 전문직, 사업자, 프리랜서 등
 - 추가대출, 대환대출, 채무통합, 신규대출 (7.5% 고정금리로 4년분할상환)
- ◆ **아파트론 -무담보 아파트대출**
 - 근저당설정없이 추가대출가능
 - 소득증빙無, 무직자, 주부도 가능

소액필요한데 근저당설정하기 귀찮으시죠? 하나캐피탈 아파트론 이용하세요

하나캐피탈은 하나은행과 한가족입니다!

www.hanacapital-manitoloan.co.kr

하나금융그룹 공식담당사 안광호 팀장

☎ 010-4041-1121

위 상담사는 여신금융협회에 정식등록된 상담사입니다

선거 홍보물 제작·시공

대형현수막, 홍보물, 명함, 간판, 배포, 현판, 계약집, 어깨띠, 광고대행

www.jwad.co.kr

중합광고대행사 (주)정원애드 062)373-2285

전통주 제조 연수생 모집

우리 전통주를 이제는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세요.

막걸리, 약주, 증류주, 과일주, 리큐류, 기타주 (창업도 가능함)

- 모집기간:
 - 조선대학교: 3월 3일까지 접수
 - 호남대학교: 3월 5일까지 접수
- 수업기간(4개월 15주):
 - 조선대학교: 3월 8일 ~ 6월 말
 - 호남대학교: 3월 10일 ~ 6월 말

문의전화

- ☎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062) 230-7700~3
- ☎ 호남대학교 평생교육원 ☎062) 370-8211~3

광사: 010-4568-0700